



지나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놀고 싶다

주 1회 학교에 가던 우리 집 초등 어린이들이 이 번 주는 주 2회 등교, 다음 주는 주 3회 등교를 앞두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등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학교 하루 털 가고 더 가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 원래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등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공부하고 싶어서 안달 난 것은 확실히 아니고 아이들은 그저 간절히 놀고 싶은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와 3학년인 셋째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12:50분쯤 하교하는데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오거나 콜렉트콜이 걸려온다.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친구 전화를 빌리는 모양이다.

둘째는 친구를 활용한다. "수 어머니, 수 놀이터에서 놀다 가도 되나요?" 이런 귀여운 문자에 안 된다고 되짜를 놓을 재간이 어디 있으랴..... 학원 가기 전까지 놀다가 오라고 허락을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강충강충 뛰며 좋아하는 토끼 이모티콘이 날아온다.

셋째는 학교 전화기로 콜렉트콜을 걸어온다. "엄마, 친구랑 좀만 놀다가 가도 돼?"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흥분의 도가니이다. 알겠다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이미 끊어졌다. 잠시 후 집 앞 놀이터에 우리 아이와 친구들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 퍼진다. 그나마도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되며 가능해진 일들이다.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된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워낙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랑 노는 것이 최고였던 나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올해 들어 거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했다. 마스크와 건강 상태 자가진단 없이는 교문을 통과할 수 없으며 학교 쉬는 시간에도 아예 대화 금지, 급식 먹을 때는 가림판이 턱 버티고 있으며 하교 후에는 학교 도서실이나 놀이터 그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다. 학교 밖에서도 가을이면 매일같이 놀이터에서 한두 시간 뛰어놀았을 텐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일파티들도 모두 취소되거나 간소화 되었고 친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마저 망설여졌다. 곧 핼러윈데이가 다가오는데 올해는 매년 하던 이벤트도 패스해야 할 상황이다.

한창 친구와 어울려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할 노릇이다. 이게 다 얼어 죽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어디 가서 뻑뻑 소리라도치고 싶은 심정이다. 정말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눈 딱 감고 몇 달만 참아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을 향해 가면서도 종식에 대한 기약이 없다는 사실이 맥이 확 빠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정지된 것만 같을 이 할리우드 영화 같은 상황에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맛있는 주 1회 먹는 급식 반찬을 기대하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라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여전히 학교가 즐겁고 틈만 나면 놀고 싶다. 이 끝까지 않는 답답하고 지겨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씩씩 자라고 있다. 날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종식될 줄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할 텐데 나조차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저 아이들에게 다시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땀 흘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년 아줌마인 나 역시 아이들 학교 보낸 후 내 육아 동지들과 함께 차 한 잔하며 육아스트레스를 공유하고 가끔씩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하며 깔깔거리며 놀 수 있길 학수고대한다. 아이도 어른도 마음껏 놀고 싶다. 그런 날이 사무치게 그리운 2020년 10월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p>*독점*오렌지 힐</p> <p>fixer city and canyon view 3,332 sq.ft 방5개 화3 큰 보너스룸 조금 손보셔야 하는 집 그냥 사면 대박나는 매물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처 119만불에 팔리고 있는 집 \$950,000</p>	<p>*독점*부에나팍</p> <p>마켓에 안나온 집 1990년 방4 화3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교통 편리하고 생활 편리한 지역 예쁘게 잘 가꾸어진 정원과 마루바닥 \$739,000</p>	<p>라미라다 단층집</p> <p>IN ESCROW</p> <p>대지 10,228sf 방4 화3 수영장 이런가격에 이런 집은 다시 보기 힘든 집 보시면 반할 단독 주택 \$638,000</p>	<p>*독점*오렌지힐</p> <p>SOLD</p> <p>오렌카운티 시내 전체와 카타리나 섬이 보이는 숨막히는 전망을 가진 집 방5 화3 넓은대지 10,000sf 단지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집전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집 보시면 한눈에 반하실 turn key 매물입니다. \$1,198,000</p>
<p>새집 분양</p> <p>플러튼 부에나팍 라하브라 방 3개 화 3개 1,578sf \$55만~\$59만부터</p>	<p>*독점*라하브라 단층집</p> <p>SOLD</p> <p>대지 11000sf, 방3 화3 + 넓은 보너스 룸 1,902 + 560sf 넓은 윗마당 많은 과일 나무(아보카도,오렌지 자몽,석류,무화과,마카다미아 등) \$789,000</p>	<p>뉴포트비치 상가 단독 건물</p> <p>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번화가 위치 9대 까지 파킹할수 있는 단독 주차장 스페이스 주위 상권들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Grooming shop, Deli, Coffee shop, Retail 등등 발보아 아이랜드가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 비즈니스 대박 나실 자리 임에 틀림 없습니다 아주 좋은 리스 조건</p>	<p>렌트</p> <p>플러튼 하우스 렌트 방4 화3 마루바닥 좋은 학군 새페인트 넓은 정원 \$3,200</p> <p>플러튼 타운홈 렌트 방3 화3 좋은 학군 도보거리 \$2,500</p>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

※ 새집 분양 일반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